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독약이고 독기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2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월 2일) 2019년 2월 6일 수요일

美 동·서부 주요 도시 한국불교 수행법 전파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한인불자회 초청 방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서울 강남구에서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으로 전법활동에 매진하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미국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LA · 뉴욕에서 각각 대규모 명상힐링대회를 연다. 국내서 2016 세계명상대전과 2018 DMZ세계평화명상대전을 개최하며 명상열풍을 주도해온 각산 스님이 미국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은 오는 3월 22~24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미국 LA 고려사에서 '각산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명상대회'를 개최한다. 월간잡지 미주현대불교 창간 30주년을 맞아 함께 기획된 이번 명상대회는 미국 한인 수행자모임이 각산 스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수행지도를 초청하며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산 스님은 2박3일간 LA에 거주하는 한인불자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초기불교와 간화선 수행법을 전하며 진정한 '이뭣고' 화두를 전할 계획이다. 스님은 수년 전부터 참불선원에서 부처님 당시 전통가르침인 호흡명상(아나빠나사띠)을 현시대에 맞춰 재해석한 사마타-위빠사나 통찰 집중명상을 가르쳤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행자들의 기초를 다지고 '이뭣고' 화두로 이끌어 직접 명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다.

현재 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원익 법사)는 사전예약을 통해 2박3일 집중수행 참가자 100명과 법회참가자 등 5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신문, 라디오,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진행중이다.

이번 대회는 일반적인 초청법회 형식이 아닌 미국사회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명상을 테마로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을 전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실참과 법문, 지도가 병행돼 참가자들의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각산 스님은 1월 30일 본지에 "LA 한인불자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150여 명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한번 수행법을 지도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며 "한인불자들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승려로서 변변찮은 수행자인 제가 한국불교 수행법을 알리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각산 스님은 이어 "미국 내 명상열풍은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스티브 잡스는 묵조선을 했다. 하지만 묵조선보다 더 쉬운 것이 간화선이다. 다만 국내에서 '간화학'처럼 다뤄지고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일반초청법문이 아니라 수행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또 다른 수행의 묘미를 전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각산 스님은 3월 LA 명상힐링대회에 이어 오는 10월 11~13일에는 뉴욕을 방문해 같은 수행프로그램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 대회 역시 LA와 마찬가지로 뉴욕 한인불자회 초청으로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대회 일정만 정해졌지만 유력한 대회 장소로 뉴욕 센트럴파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서도 2박3일 집중수행과 명상힐링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3월 LA · 10월 뉴욕서 각각
'대중 명상힐링대회' 예고
일반적인 초청법회 벗어나
실참 · 법문 · 지도 수행중심

위빠사나 중심 미국사회에
초기불교-간화선 통합수행
개개인 느끼도록 지도 계획
세계명상대전 후속 순례도

각산 스님은 각각 미국 동 · 서부 명상힐링대회를 마친 뒤에는 2016년 세계명상대전에 법사로 참여한 여러 국가를 대표하는 스님들을 찾아가는 '세계명상대전 순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시 명상대전에는 국내 선수행을 대표하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비롯해 태국 아잔 간하, 호주 아잔 브람, 대만 심도 선사가 한자리에 모여 불법(佛法)을 전한 바 있다. 이에 각산 스님은 불자들과 4개국을 차례로 순례하며 대중 명상캠프를 열 계획이다.

한편 미국사회서 명상은 하나의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수행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업체 22%가 명상 수행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머지 21% 기업도 명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중이다. 특히 2017년 약 12억 달러로 추산된 명상산업 규모가 매년 약 11%씩 성장해 2022년쯤 2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미국 내에서 전망하고 있다.



설날, 조계사 떡국 드세요 서울 조계사는 설날을 맞아 1월 29일 쪽방촌, 고시원, 다문화가정, 환경미화원 휴게소 등 종로구 관내 이웃들과 총 1430kg의 떡국떡을 함께 나누며 새해를 준비했다. 29일 아침 조계사 방앗간에서 원주 명경 스님과 신도들이 이웃들과 함께 할 떡국떡을 준비하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 총장 후보 윤성이 · 이은기 · 조의연 압축

총추위, 1월 30일 회의서 결정
2월 8일 이사회서 총장 선출


윤성이 교수


이은기 교수


조의연 교수 〈가나다 순〉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거 최종 후보에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 이은기(서강대) · 조의연(영어영문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가 최종 선출됐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선출위원회(위원장 원명)는 1월 30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총추위는 최종 후보 인원으로 3명을 선발해 이사회에 올리기로 했다. 총추위 규정에 따라 외부인사인 이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투표와 상관없이 자동 진출하게 됐다. 이후 총추위는 결의 직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개표결과 윤성이 · 이은기 · 조의연 교수가 동국대 제19대 총장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오는 2월 8일 후보로 추천된 3인 중 1인을 동국대 제19대 총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제19대 동국대 총장 임기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후보로 선정된 윤성이 교수는 학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활발한 외부활동을 펼쳐온 것이 강점이다. 제3대 한국사찰림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사찰림이 가지는 공익성과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윤성이 교수는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건학이념 △지속경영 △연구 영역 △교육 영역 등 4개 분야 역량 강화 20개 과제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교산업진흥원은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학과 재학생의 현장 실습 또는 취업 기획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대학 평가 100위 이내 10개학과 보유대학 및 국내 10위권 대학 위상을 비롯해 1000억 원대 연구비 조성 · 50%대 등록금 의존율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기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외에서 많은 활동을 이뤄왔으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현재 활동 중이며, 동국대 법인 이사이기도 하다. 이은기 교수는 △이공대 · 연극영화학부 집중 육성 △야간 로스쿨 설립 △명상 일상화 통한 인재 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시드머니 1조원 조성을 공언했다.

조의연 교수는 경영관리실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해 교내 행정에 밝으며, 대내외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강하다. 또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문 불교용어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의연 교수는 "공감, 공유, 공영의 경영가치를 기반으로 내 · 외부 자원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겠다"며 'PROMISE 2019~2022'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교육 · 연구 시너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연구 전진기지인 '동국융합원' 설립과 지역사회 · 구성원과의 연합을 위해 고양바이오메디컬캠퍼스에 부총장 · 행정처장 직제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18일 차기 총장 선출방식을 위한 4자협의체(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법인사무처)간 논의 끝에 기존방식인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1월 15~16일 양일간 제19대 총장 후보자를 접수받아 총 10명이 총장후보자로 출마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총추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견 발표를 진행했으며 사상 최초로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1월 28일 개최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설 연휴 관계로 다음주 휴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연등 자동승강장치 최초 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